

암환자를 위한 탈모 치료

ASAN MEDICAL CENTER GUIDE FOR PATIENTS AND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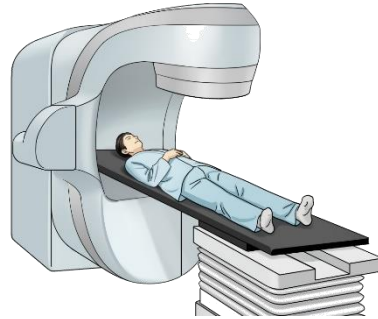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 암병원



01 암 치료 중에 탈모가 발생했어요

암을 치료하는 중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탈모이나, 호르몬 요법 및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들은 흔히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으로서,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들로 구성된 모낭에 손상을 유발하여 탈모를 일으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 속눈썹 등 체모가 모두 탈락할 수 있습니다.

탈모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투약 받는 항암제의 종류와 치료 기간에 따라 전신의 털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털이 빠지진 않고 가늘어지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2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나요?

탈모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투약 받는 중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모자나 가발을 착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암요법이 끝나고 2개월 정도 지나면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체모에 비해 두발이 먼저 자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발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과 동일한 정도로 털이 자랄 때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며, 처음에는 가는 모발이 자라다가 조금씩 굵어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항암제의 종류와 치료 기간에 따라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데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나요?

항암치료가 끝난 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잘 자라는 경우에는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모가 더딘 경우 발모제(미녹시딜)를 도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만, 약품에 함유된 화학성분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하여 발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영양제 섭취 등은 추천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저 질환(암, 만성 질환 등)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만으로도 모발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 할 수 있습니다.

04 어떠한 경우에 탈모에 대한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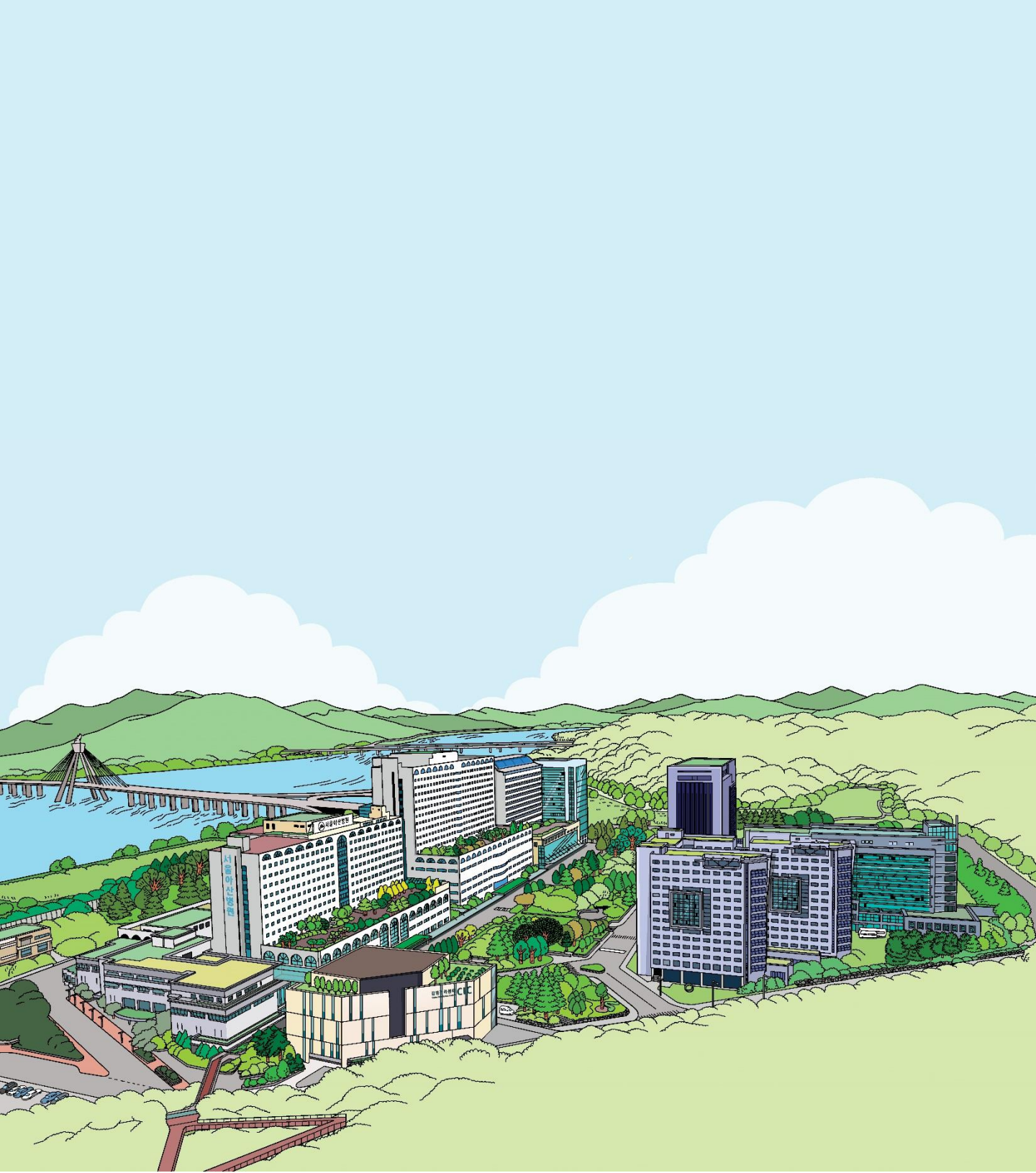
항암치료가 끝나고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경우나 특정 부위의 모발만 자라지 않는 경우, 탈모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의료인의 상담과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탈모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암환자의 장기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치료 후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발생한 탈모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료명	의료진		진료일정
	진료과	진료의	
암환자 탈모 클리닉	피부과	문익준	매주 화/수 오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대표전화 : 1688-7575

 <http://www.amc.seoul.kr>